

서울시극단

연극

유령

I'm nowhere

본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서울시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 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시극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울시극단 smtc01@naver.com



연극

유령

I'm nowhere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입니다.

서울시극단의 2025년 두 번째 정기공연 <유령>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이번 작품은 고선웅 작가이자 연출가의 오랜 창작 열정이 담긴 무대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에 놓인 이들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존재하지만 쉽게 잊히는 이들의 삶과 목소리가 무대 위에서 다시 살아나,
현실과 연극의 경계를 넘나들며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예술이 단순한 관람을 넘어, 관객의 삶에 스며들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령>은 우리 곁에 있었지만
눈여겨보지 못했던 삶의 단면들을 조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조용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다루는 주제는 가볍지 않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시선과 유머,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어, 관객 여러분께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감동과 공감을 전할 것입니다.

관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서울시극단의 <유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긴 여운으로 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줄거리

극장에 배우들이 모여 있다. 그들의 역할이 시작된다.

배명순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출한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 주민등록도 포기하고

정순임이란 이름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떠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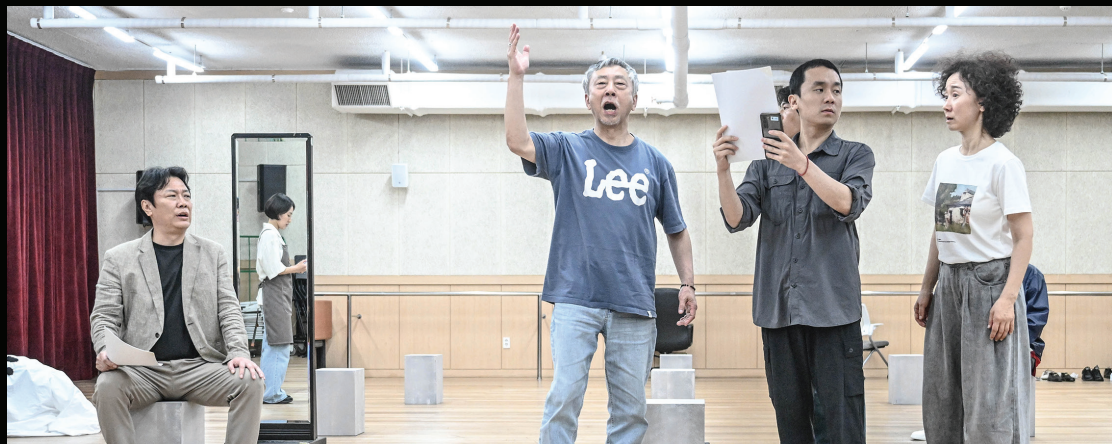
16년 뒤, 원래의 이름을 찾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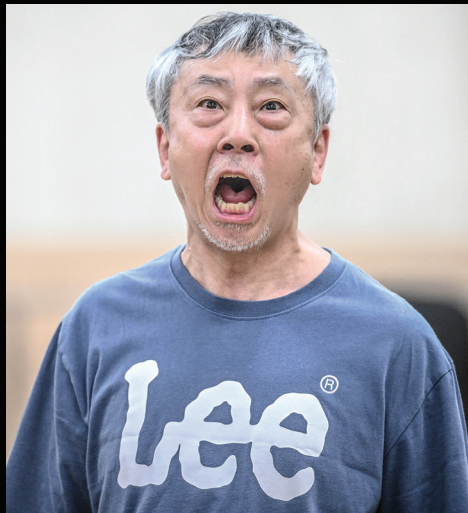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무연고자로 쓸쓸히 죽는다.

시신 안치실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화장되지 못한 채

떠도는 유령들을 만나는데...

I'm
nowhere











●
작품읽기

동시대 우리 사회 속의 '유령'

이화원

(연극평론가, 상명대학교 명예교수)

19세기 말 노르웨이의 입센에게 '유령'은 이전 시대로부터 이어져 다음 시대에까지 사회와 개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관습과 관행 등을 의미하였다. 한편 스웨덴의 스트린드베르히에게 유령은 우리 삶을 위협하는 '잔혹' 혹은 엄정한 삶의 진실을 뜻한다. 유령의 사전적 의미는 "1. 죽은 사람의 혼령, 2. 죽은 사람의 혼령이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난 형상, 3. 이름뿐이고 실체는 없는 것" ¹⁾이다. 서울시극단의 2025년 시즌 두 번째 작품인 창작극 <유령>(고선웅 작·연출, 세종 S씨어터, 2025년 5월 30일 - 6월 22일)에서의 유령은 대체 무엇일까? ²⁾

작품의 제목에서부터 출현하는 유령은 우선 생명이 다했음에도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유령일 것이다. 실제로 그 유령들은 작품의 중반, 그들이 머물던 시체안치실에서 관객들의 눈앞으로 나타나, 공연이 끝나는 시점까지 무대 위에서 머문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다. 작·연출을 맡은 서울시극단의 고선웅 예술감독에게 유령은 더욱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 채 유령처럼 떠돌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는 작의에서 이처럼 밝히고 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처럼 죽어야 한다. 이 연극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는 그들에게 측은한 마음이 생겨났고
어떻게 해서든 그네들의 아픔과 고통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1) '네이버 한글 사전' 참조.

이에 의거해 볼 때 이 작품에서는 “이름뿐이고 실체는 없는” 유령과도 같은 빈한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측은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장 적절하게 그려내기 위한 연극적 방법으로서 고선웅 감독은 통상적 의미의 유령과 작품 속 의미의 유령이 혼재하는 세상을 펼쳐 보인다. 또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지워진 무대 위 세상에, 자신의 실제적 삶과 역할의 허구적 삶을 동시에 살아야 하는 배우들의 세계를 중첩시킨다. 실제 삶 속에서 또한 배우들 모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정에서 아들로써, 딸로써, 가장으로서, 어머니 혹은 아버지로서, 그뿐 아니라 친구로서, 동료로서, 동창으로서, 교우로서, 이웃으로서 등등... 삶 속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얼마나 다양한가.

공연을 여는 첫 대사에서 배명순 역은 다음과 같이 무대에 선 배우의 입장에서 말한다.

배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생에서 배씨, 정씨 그리고 다시 배씨입니다.
무대에 섰으면 연극에서 맡은 역할을 말해야지 생은 무슨 생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배씨가 다시 배씨는 뭐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근데 그렇게 말고는 달리 말을 못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의 초반, 오씨와 박사장 등 주인공 배명순을 괴롭히는 악역들을 수행하던 친구(강신구 배우)는 돌연 배우 자신의 역할과 대사에 대한 불만을 진하게 표기된 다음 대사로써 토로한다.

박사장: 내가 당신 속을 어떻게 알아? 누가 들으면 내가 건드린 줄
알겠네. 내가 당신 벗겨봤어? 그럼 찢히게 보여주든가.
강씨: 드러운 새끼. 역할을 맡아도 꼭 드러운 거만....
신구: 유경아, 정말, 미치겠네, 나도. 그 대사 빼고 가자고 연출한테
몇 번을 말했단니까. 우리집 애들이 이 연극 보러오겠어?
몇 번을 애원했단니까. 근데 안 빼주잖아. 오씨 역할도 짜증나
죽겠는데 연출! 어딴어 연출! 나도 이런 대사 안 좋아해, 연출!
지하: 친구씨, 왜 그래?

이 지점에서 배우들은 작품 속 역할이 아닌 자신의 실제 이름으로 표기되고 배우 개인으로서 말을 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자신의 대사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던 친구는 연출을 소리 높여 찾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난한 삶을 부여한 ‘신’의 현재적 부재에 대하여 오래전 인류가 목도한 바와 같이, 작품 속 인물을 창조한 작·연출은 무대 위에 부재할 뿐 나타나지 않는다.

서울시극단의 <유령>에서는 이처럼 무대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배우들로 하여금 허구적 인물의 연기와 배우 자신으로서의 현존을 넘나들도록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상 무대 뒤에 머무는 스태프인 분장사 및 무대감독이 버젓이 무대 위로 올라 공연에 개입한다. 분장사 역의 경우 다른 배역의 배우들과 마찬가지로 역할의 수행 외에도 배우로서의 자기 자신, 유경(전유경 배우)으로서 다른 배우들과

소통하며 무대에 머문다. 다만 무대감독 역의 경우에는 연출을 찾는 배우 앞에 연출의 메신저로서 등장하여, 무대감독 및 그가 수행해야 할 기타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마치도 실제 무대감독 이봉달인 듯, 다른 배역들처럼 배우 자신 승우(이승우 배우)로서 존재를 노출하지는 않는 채 작품의 말미까지 연출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차별성을 가진다.

작품의 중반 지점에는 유령 역 배우들(우점수 역 신현종과 황종배 역 홍의준)마저 느닷없이 무대 전면으로 등장하며, 무대 위 현실 속 인물 역의 배우들과 배우 자신으로서 소통하기 시작한다. 또한 작품의 중반 이후 배우들이 극 진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가운데 객석으로부터 관객을 대표하는 듯 신기(김신기 배우)마저 등장한다. 이후 배우들의 고충을 들어주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역할인지 따지지 않는 거, 그냥 세상살이처럼 견디는 거!” 그럼 된다는 연출의 말을 읊으면서 역할들의 상대를 해주는 등 무대에 머문다. 연출의 주제 의식은 유령 역 배우 신현종의 다음 대사에서도 이처럼 드러난다.

현종: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근데 다시 또 보니까 그래도 연극은 연극, 인생은 인생이야.

무감: **연극은 인생, 인생은 연극 아니구요?**

신구: **너 왜 그래? 부답스럽게. 현빈아.**

현종: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니까. 오온이 공한 거야. 색수상행식. 응?**

그게 무상하다고. 그런 게 있어. 찬 게 빈 거고.

연극과 인생은 과연 우리의 고정관념만큼 구별되는 것일까? 연극 속의 배우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떠날 수 없듯이, 삶 속에서의 우리 또한 나의 인생이라는 한 편의 연극 안에서 부여받은 역할을 단순히 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작품 속에서 지지리도 궁상맞은 삶을 살고 떠나야 했던 배명순(정순임)이나 황종배 혹은 우점수 모두는 작품 속 분장사가 분장해 준 자신의 삶이라는 연극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때가 되어 삶을 거둔 것은 아닐까? 나의 역할을 내 마음대로 수정하여 연기할 수는 없는 배우의 숙명처럼, 나에게 생명을 준 신이 부재한 세상에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삶의 역할을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히 수행하다가 삶의 막이 내리면 또 다른 차원의 유령이 되어 어디에선가 머무는 것은 아닐까?

무책임한 신의 피조물로서 유령처럼 살다가 유령으로 떠도는 인물들과 중첩하여 배우들의 세상을 그려내는 이 작품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관객에게 무심한 듯 톡톡 던지는 듯하다. 분장사 강시분 입장에서 다음 대사 또한 의미심장하다.

유경: **분장사 시분이 역할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알던 배우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네. 칠한 다음에 변하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리고 분장이 지워지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원래 그 사람인데 그렇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배명순이든 정순임이든

오상필이든. 그럼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대사에 이어 배명순 역은 본인의 분장을 지워달라고 부탁한다. 본인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분장을 모두 지운다면 그 자리에 남은 얼굴은 누구의 얼굴인가? 분장과 역할을 모두 제거한 존재가 과연 배우 혹은 인간일 수 있을까? 그것은 다만 있어도 없는 없어도 있는 유령인 것일까? ³⁾

극의 말미, 배명순은 암으로 사망하고 연고자 하나 없이 시체안치실 냉동고로 향하게 된다. 허무한 죽음을 맞은 데 이어 무연고 시신으로서 길게는 173일째 까지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 무연고 시신들은 시청으로부터 안치료를 받아야 화장을 거쳐 이승을 떠날 터이나 의회 승인이 보류된 터라 하염없이 냉동고 신세를 지고 있다.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의 무연고 시신들의 사정을 파악하게 된 신기는 흥분하여, 그들에게 최종 안식을 허할 수 있도록 연출을 찾는다. 그 시점 마침내 연출은 무대 감독에게 다음 메시지를 전한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처럼 죽어야 마땅합니다. 유명처럼 취급당하며 살았고 죽어서도 유명처럼 떠돈다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유명들이 더 이상 떠돌지 않게 마무리 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의 피날레를 제시한다: "신기가 연출을 찾다가 끝내 찾지 못하자 화가 잔뜩 난다. 편의점에서 산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무대 커튼에 톡 던진다. 폭발하듯 화라라락 불이 붙는 극장, 그 바람에 유명들은 천장으로 솟구쳐 오른다."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연출을 믿은 내가 바보~다!" 등등 소리치며 배우들은 무책임한 듯한 연출에 대하여 다시금 흥분한다. 하지만 이내 나름대로 묵묵한 수행을 통하여 해법을 찾아가는 배우들..., 냉동고의 시신들 하나하나에 작별의 말과 함께 불을 붙여, 그들이 이승의 삶을 훌훌 털어버리고 안식처로 향할 수 있도록 한다. 유명들이 드디어 깨달음의 미소와 함께 하늘로 상승하는 가운데, 극을 닫는 다음 마지막 대사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를 기대해 본다.

신기: 세상은 무대, 사람은 배우.

가끔가다 유명도 있구나.

생긴 것은 사라지고 모인 것은 흩어지나니

유명1: 제 아무리 후진 역할도

유명2: 제 아무리 못난 역할도

배씨: 결국은 다 퇴장이구나.

3) 이러한 주제의식을 이어지는 다음의 대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배씨: 아니 분장을 지웠는데? 그럼 나는 없잖아?

현종: 오픈개공! 오픈이 공한 상태네.

유명2: 있어도 없는, 없어도 있는.

유명들: 유명.

고선웅 연출 인터뷰

1. 유령은 어떤 작품인가요?

이 작품,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쉬운 듯하면서도 쉽지 않고, 간단한 듯 복잡한 작품이에요. 무대 위에는 분장실, 시체 안치실, 그리고 공연이 벌어지는 무대라는 세 공간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예상치 못한 소동들이 벌어지고, 등장인물과 배우 자신의 본질이 뒤섞이며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래서 단순히 한마디로 규정하기 힘든, 복합적인 매력을 지닌 작품입니다.

2.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작품인가요?

우리가 “세상은 무대고 인간은 배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무대 위에서 그 말을 한번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혹은 내가 그 역할을 스스로 선택한 건 아닌지—배명순, 오상필 같은 인물들을 통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역할’이라는 개념을 무대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죠.

3. 유령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예전부터 “세상은 무대고 인간은 배우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신문에서 무연고자 관련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존재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들이 ‘존재하지만 지워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배우가 무대에서 맡은 역할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4. 관객들에게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전해졌으면 하나요?

이야기의 중심은, 무연고자로 생을 마감한 이들이 유령이 되어 무대 위로 돌아오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스케치처럼 들려주는 구조예요. 유령처럼 떠돌더라도, 그것 또한 자신이 선택한 하나의 인생의 역할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공영장례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무연고자들이 온전히 애도받지 못한 채 삶을 마칩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런 현실도 조금이나마 알려지고,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관객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힘들고 지칠 때 “내 인생은 뭘까”, “이번 생은 망했어” 같은 생각이 들 때, 그 역시 스스로가 선택한 역할이고, 그 역할을 통해 삶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위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5. 관람 포인트가 있을까요?

특정한 장면을 따로 짚기보다는, 전체 이야기를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꼬이고 얹히며 진행되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꽤 있습니다. 소동극이자 코미디적인 요소도 많아서, 배우들의 열연과 함께 유쾌하게 관람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극중극 구조가 계속 꼬이면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이 작품만의 독특한 즐거움을 줍니다.

6. 마지막으로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유령〉은 제목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무섭거나 그로테스크한 작품이 아닙니다.

또 너무 어렵게 고민하며 봐야 할 복잡한 연극도 아니고요. 그저 “세상은 무대고, 나는 배우다. 그리고 이 무대에는 연출이 없다. 매일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잘 당면하면서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작품이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극장에 오셔서 편안히 보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연진

**이지하**

배명순, 정순임이기도 하다.

[연극] 미저리, 대학살의 신, 벚꽃동산, 과부들, 억울한 여자, 그린벤치 외

[방송] 해피니스, 학교 2021, 이브, 오징어게임, 슬기로운 의사생활 외

[영화] 럭키아파트, 경아의 딸, f20, 부라더, 아가씨 외

[수상] 2015 서울연극인대상 연기상
2008 동아연극상 연기상
2005 서울연극제 신인연기상

**신현중**

우점수라는 유명1역이다.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인생 오후 그리고 꿈, 고트, 고래, 정의의 사람들 외

[뮤지컬] 님의 침묵, 레미제라블, 카바레, 아가씨와 건달들, 파라다이스 티켓 외

[영화] 인질, 작전, 괴물, 선생 김봉두, 살인의 추억, 와이키키 브라더스 외

[수상] 2018 대한민국 연극제 최우수 연기상 외
2015 한국연극배우협회 올해의 배우상
2008 허서연극상 올해의 배우상

**강신구**

오사장, 박사장, 형사를 겸한다.

[연극] 통소소리, 트랩, 연안지대, 컬렉션, 카르멘, 갯팅아웃, 벚꽃동산, 사막 속의 흰 개미 외

[수상] 2019 제55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2003 제1회 PAF 연극연기상



김 신 기

관객처럼 등장하는 배우. 노형사를 겸한다.

[연극] 코믹, 통소소리, 트랩, 윤, 카르멘, 갯팅아웃, 갈매기, 베니스의 상인, 구로동 연가, 기도, 우연한 알츠, 건축사와 아씨리황제 외



전 유 경

강시분, 미역국, 여형사, 여사장, 향숙을 겸한다.

[연극]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이스캐끼, 아워시티-우리도시, 마리아와 함께 아아아아아, 아버지의 집, 해변의 카프카, 만선, 황구도, 떠나따나, 변신,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외

[방송] 달콤한 비밀, 모범택시, 징크스

[영화] 유경, 로망

[수상] ASIAN Cinematography Awards - Best Acting in a lead role 단편 <유경>



홍 의 준

황종배라는 유령2역. 한정식 사장을 겸한다.

[연극] 칼로막베스, 들소의 달, 목란언니, 푸르른 날에, 홍도, 탈출, 토끼전, 낙타상자, 회란기

[방송] 진검승부, 지옥 시즌2

[영화] 전,란



이 승 우

무대감독, 이봉달, 간호사를 겸한다.

[연극] 코믹, 통소소리, 트랩, 연안지대, 윤, 굿닥터, 갯팅아웃, 키스, 밝은 밤, 발이 되기

●
연출

창작이긴 합니다만 영감을 준 것은 무연고자들에 관한 기획 기사였습니다.

기자의 문체도 좋았고 마음과 열의가 느껴져 깊이 절감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도 고스트 스토리였습니다. 무대화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픈 이야기라서 무거운 서사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던 사이 나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저런 공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계속하는 동안 세상은 무대, 사람은 과연 배우일까 하는 이런저런 생각도 더러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이 연극은 세 가지의 생각이 겹쳐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존재감 없이 존재하다 사라진 무연고자라 할지라도 만일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그런 배역을 선택하고 맡았다면 그 마지막이 훨씬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불교도는 아니지만 여기에는 공과 색에 관한 어설프고 알팍한 저만의 짐작도 들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런저런 상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존재를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살지만 어쩌면 그 존재는 증명하는 순간 사라지는 허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언제인가부터 나를 지워야 비로소 연극이 완성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유령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지곤 하였습니다.

부족하고 성긴 서사와 대사를 참여한 배우들께서 예리하게 지적하고 메워 주셨습니다.

무대와 의상, 분장과 조명, 소품, 음악을 비롯한 스태프 여러분들도 정말 각별하게 관심과 열의를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감을 주신 한겨레의 이문영 기자님께도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좋은 뜻에서 출발한 연극이니 관객 여러분도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연고자와 무적자들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극단장 겸 연출 **고선웅**

무대디자인

관객과 배우의 중간... 그 어디쯤...

대본의 첫 느낌이었다.

‘연극적’이라는 약속 속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언어들로 자유롭게 시공간과 인물을 넘나들었지만, 대본을 읽고 연습을 보면서 인물들은 ‘중간’이란 공간에 갇혀 있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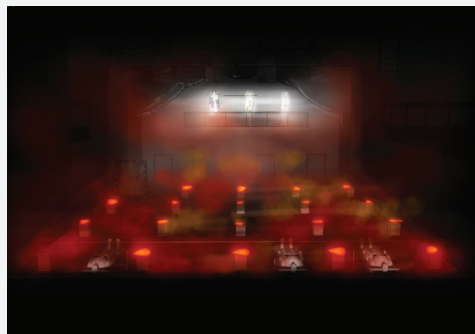
이 사람들은 얼음 속의 사람들일까? 점점 얼려진 사람들일까?

무대미술은 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초반, 좀 더 콘셉트에 따른(얼음, 극장의 화려한 막 등등) 많은 이미지들로 채워졌지만, 공간은 점점 비워져 관객들이 배우에게 언어로 상상할 수 있는 폭을 더 넓게 만들기 위해 구상하였다. 공간을 더 비워내고 싶어 배우가 밟고 있는 바닥과 공간도 無로 만들기 위해 애썼고 사용 가능한, 현존하는 가장 어두운 물질인 무소블랙을 사용하게 되었다. 검정 배경을 더 비워내 공간이 빛조차 삼켜버리는, 기억과 시간, 감정이 퇴적된 무중력의 공간감을 가지길 원하면서 그림을 그렸다.

매우 까다로운 소재의 선택에도 가능하게 지원해주신 서울시극단 식구들과 무대제작팀, 극장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무대 디자이너 **심재욱**





음악

우리들은 종종 인생을 드라마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 주인공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할 자기 인생에 스스로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인공을 꿈꾸고 사회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거나 스타의 삶을 꿈꾸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또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롤 모델이 있고 그 모습을 따라 하기도 하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돌아와서...우리들의 인생을 연극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인생이 무대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연극에서 주인공만 존재해서는 연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흔히 주인공 말고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도 주.조연 역할들이고 그 밖의 역할은 기억에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령>이라는 이야기에서 보듯 모든 역할에서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경중의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할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음악은 전반적인 연극에 대한 이야기처럼, 마치 각자의 인생에 있어 파편적인 에피소드를 병렬식으로 나열된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시절 당시의 스타를 보면서 열광했던 기억처럼 그 시절의 명곡들을 통해 타임머신과 같이 그때의 기억을 되살립니다. 유명 영화의 OST, 당대의 메가 히트송, 뮤지컬 넘버 등등 그 음악만 들으면 비록 유명처럼 눈에 띄지 않았던 삶이지만 나름의 기억을 통해 살아있었음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다시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에 와서 인생무상을 외치듯 제자리를 찾아 되돌아가면서 자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고 나는 그중에 잠시 왔다 가는 것을....

“발아래 땅은 돌고 내 결의 강은 흐르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연극을 끝내듯,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모습들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 공연에서 음악들은 우리 인생의 순서를 닮아있습니다.

음악감독 **김동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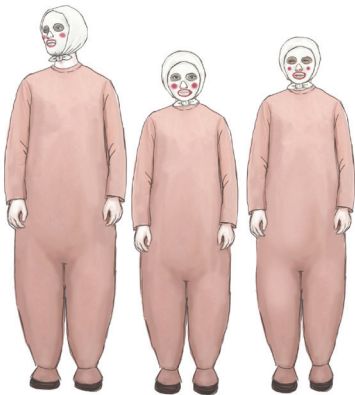
의상디자인



유령처럼 살아야 했던 배명순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 실존이었기에 비극적인 그녀의 이야기가 초현실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의상에서 사실적인 것과 허구적인 것, 비극적이면서도 너무 비극적이라 희극적인 '아이러니'가 공존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사실적이면서도 가짜 배 등 연극적 장치가 보이도록 했고, 죽어서도 평안하지 못한 그들의 비극적인 사정을 위로하는 제의적 의상을 배치했습니다. 나중에 벗겨지고 나오는 유령들의 살색 의상은 살덩이인 몸으로써 우리와 같은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길 바라며 희비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의상 디자이너 **유미양**



분장디자인

창작품 유령에 참여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장르, 새로운 배우, 그리고 새로운 제작진과의 만남은 언제나 가슴을 뛰게 하는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 설렘과 긴장 속에서 피어나는 창작의 순간들은, 예술이 주는 송고한 기쁨이자 선물이라 믿습니다.

이번 작품은 삶과 죽음의 이야기에 캐릭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배역의 역할이 많지만 무대에서 분장의 변화를 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소시민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등장인물 각자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갈등과 변화의 서사를 시각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분장은 단순한 외형을 넘어 감정의 흐름과 시간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기능했습니다.

특히 유령 특수 분장을 위해 1시간 이상 애써주신 배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대 위에 스며든 우리의 땀과 열정,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관객 여러분의 가슴에도 고스란히 당기를 소망합니다.

분장 디자이너 **강대영**



연극 <유령>은 세상에서 존재가 지워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무연고자가 되어버린 이들은 현실 속에 존재하지만, 누구의 시선에도 닿지 않는 유령처럼 떠돕니다. 이 작품은 심플한 공간 안에서, 배우들이 자신과 극 중 인물을 넘나드는 입체적인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소품은 주로 일상의 소소한 사물들이 중심이 되지만, 무대 위에서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 구의 시신입니다. 이 시신들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죽음을 맞이한 무연고자의 몸이며, 그들은 유령이 되어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돕니다. 배우들은 자신의 신체를 본떠 제작된 이 시신을 바라보며, 마치 삶의 마지막을 목도하듯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 고통과 체념, 해원의 순간을 지나 이들은 화장되고, 마침내 승천합니다.

작품은 “이 삶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폭력을 저지른 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 그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유령으로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쥐고 있는 마지막 흔적이자, 잊힌 이름의 형상이 바로 무대 위에 놓인 ‘시신’입니다. 저는 이 소품이 단순한 오브제를 넘어, 이 연극의 메시지를 가장 정제된 형태로 담아내는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생에서 여러 역할을 맡았습니다. 누군가의 친구, 가족, 동료, 그리고 이 공연의 소품디자이너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품을 만들며 마주하는 물건들은 때로 조잡하고 허술합니다.

‘이걸 관객에게 보여줘도 될까?’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건이 배우를 만나고, 조명을 받고, 무대에 오르면 관객의 물입을 돕는 하나의 역할이 됩니다.

저는 그 소품의 가장 허술한 면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완벽히 완성된 극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객의 역할을 맡은 여러분은 오늘 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이야기를 온전히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관객은 무대 위의 찬란한 순간을 감상하는 존재이지만, 각자의 삶 속 어딘가에선 치사하고 고단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되고, 어둠이 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연극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살아가는 삶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적어도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는 꼭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품 디자이너 **곽내영**



Production
제작

작·연출	고선웅
무대디자인	심재욱
무대제작	센스(CenS) 배희태 김민중 방태현 이상호 윤희성
호이스트 운영	김진국
조명디자인	류백희
조명프로그래머	조철민
조명오퍼레이터	조나은
조명크루	이재문 백하림 조문경 강상진 김대현 신경배 진준우 손태민
조명장비임차	트리거컴퍼니
음악감독	김동욱
의상디자인	유미양
의상제작	my무대의상
의상크루	박은주 정소윤
분장디자인	강대영
특수분장제작	(주)한국분장
분장크루	이수연 권아영
음향디자인	이효원
음향오퍼레이터	박소민
음향크루	배준희 김대현 김민성 김동양
소품디자인	곽내영
소품크루	박산나래 김경민 김나은
무대감독	장연희
무대조감독	김갑수
무대크루	김노현

조연출	서린
프로듀서	박지환
제작피디	유승정
홍보	박상영
마케팅	최성신
컴퍼니매니저	최희선
온라인 홍보	시드로직
티켓운영	공기(gongki) 김세희 최자연 김아람 이채연 손진아 강희성
그래픽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 크랜베리
홍보사진	정희승
연습·공연 사진	윤문성
영상	유정아
주최	(재)세종문화회관
주관	서울시극단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공연예술본부장	문경아
서울시극단	단장	고선웅
	기획 지도위원	유승정
	홍보마케팅 지도위원	박상영
	총무	최나라
	단원	강신구 김신기 이승우
공연제작1팀	팀장	구자윤
	팀원	권진철 박향미 김 민 최성신 박지환 조휘영 문혜리 배영주 신동준 박선미
공연장운영팀	팀장	김지민
	팀원	강보경 최병훈 이정연 임아라 강민선 강민재 김지성 구지휴 최민주 이연서 차주윤 김지연 유혜리 이보람
공연DX팀	팀장	김여향
		강봉진 조계성 배유진 김예지 하수정 유정아 류다혜 박세현 진푸름 서경은
무대기술팀	팀장	김수현
	책임안전관리자	이종덕
	무대감독	이민재 유병근 이기훈 장연희 정보배 김동현
		김동균 이 준 주무형 전새미 송은지
	무대기계	안종칠 김상두 김 정 서민원 박정길
		전혜연 이민우 유지수 서동진
	음향	김우람 조영진 이효원 강병권 채소영
		남윤수 김경민 김단경 박창순 최은식
	조명	노준식 김학철 조현권 김 권
		설정식 김정태 양용환 변호연
	영상	배준호 한원주 장인표 류병현
	의상소품	변미라 천지연 곽내영
	행정	민제희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김화영
	팀원	김석경 윤문성 신대섭 손귀영 한채현 이재효

서울시극단

서울시극단은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수준 높은 연극의 향유를 위해 1997년 창단되었습니다. 공공성과 미학, 보편적 주제를 통한 대중적 가치를 지향합니다. 이미 검증된 고전극부터 장르를 넘나드는 각색극, 다른 시선으로 동시대를 바라보는 창작극, 온 가족이 함께 보는 가족극 등을 올렸습니다. 또한 연극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연극교실을 운영하고 신진예술가를 발굴하여 창작 환경의 개선에도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울고 웃으며 옛날의 향수와 현재의 체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우리 연극의 표준과 미학을 지켜가겠습니다.

2025 LINEUP

Com!que 코믹 3.28Fri - 4.20Sun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Ghost 유령 5.30Fri - 6.22Sun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Toongso Whistles 통소소리 9.5Fri - 9.28Sun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Trap 트랩 11.7Fri - 11.30Sun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S e J o n g
e a s o g
2 5
세종시작



원작
극적 연출
고사웅

제작
정철진

2025.
9.5Fri —
9.28Sun

Toongso
Whistles
통소소리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서울시극단



S
2
5

e e J o n
e a s o

g n
세종시존



원작
제작·연출

프리드리히 뉘른베르크 Friedrich Dürrenmatt
하수민 Ha Soomin

2025.
11.7Fri—
11.30Sun

Trap 트랩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서울시극단

